

2017 새 설계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 “아파트 품질 개선·부동산 침체 선제 대응”

물량조절 등 대안 마련 정부에 건의  
민자 유치·도시개발사업 적극 참여  
사회공헌사업 통한 지역 발전 기여

“서민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파트 품질 개선과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홍(61)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지난 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소재 대형 건설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회장을 맡으면서 협회와 건설인의 위상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박 회장은 “중앙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뤄 대정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 마련에 힘을 생각하며 지역 건설사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민자 유치와 도시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압운이 드리워지고 있는 부동산시장과 관련 대책과 극복방안에 대한 언급도 아끼지 않았다. 주택건설업은 노동집약적산업으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조선이나 자동차 업종의 배 이상이며 내수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것. 이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물량조절에 적극 나서고 조정국면에 적합한 공급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당국도 조정국면 시장에 맞는 탄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는 거대한



산에 가로막혀 있는 주택자금대출을 정상화해야 하며,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실에서 내수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한 더 이상의 규제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봤다.

또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70%에 불과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표준건축비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90%선까지는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 사업의 미래와 관련 문화와 예술, 공동체라는 개념이 결합된 문화·사회융합형 주택에 방점을 뒀다. 박 회장은 미래의 신 주거 트렌드로 공유주거의 확산이라는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와 사회가 융복합된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 위상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회장을 맡기전부터 범무보호복지공단, 영무예다움 봉사단, 보호관찰협의회, 공연봉사단체인 'CM밴드' 등에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23년째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 186가구를 무료로 개·보수하는 활동을 펼쳐온 협회는 2014년부터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주택에 대한 보수지원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남 지역 저소득층 노후주택 112동을 개·보수했고 올해는 대상을 광주까지 확대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사랑의 연탄 나눔 등 지역사회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끝으로 박 회장은 “주택사업하기 힘들어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의욕적이지만 신중을 기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난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25년 동안 주택건설산업에 종사해 온 지역 건설업계의 산증인으로 중앙회 대의원·감사, 광주·전남도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주택건설 은탑산업훈장, 제15회 용봉경영자대상 수상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해 지난 2011년 메세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5.12 (-3.66)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2)
↓ 코스닥 636.73 (-5.42)	↓ 환율 (USD) 1194.60원 (-13.70)

## 명절 앞 계란 등 성수품 집중 공수

농식품부,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 유도·할인 행사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만큼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를 유도하고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성수품 수급안 정대책 및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성수품 구매가 집중되는 설 전 약 2주간(1월 13~26일)을 집중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농협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배추와 무 등 10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약 1.4배 늘린 하루 7232t씩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AI 여파로 공급량이 부족한 계란은 가정소비자 집중되는 기간(1월 21~26일)에 공공부문을 통해 하루 1천만 개 이상 시장에 집중 공급(총 7000만개)한다.

계란은 농협계통 비축(2000만개), AI 방역대 내 출하제한 계란(2800만개), 민

간수입(1200만개) 및 AI 비축(1000만개) 물량이 활용될 예정이다.

한우는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1월 16~28일, 400억원 규모)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 개에 대한 포장·운송비가 지원(10억원)될 예정이다.

농협 판매장 내에서는 소포장 선물세트인 ‘한손과일 세트’ 판매코너를 운영하는 한편 시중가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1월 9~26일, 22억 원 규모)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고가로 분류되는 인삼도 10% 할인 판매를 비롯해 실속형 선물제품이 신규(11종) 출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5만 원 이하의 농식품 선물세트에 ‘실속 농식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해 청탁금지법 가격 기준(선물 5만원)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벤츠 ‘더 뉴 E-클래스 쿠페’ 첫 공개

美 디트로이트 모터쇼 참가...주행 보조·안전 시스템 탑재

메르세데스-벤츠는 9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 프리미엄 이그제큐티브 세단 ‘더 뉴 E-클래스’ 패밀리에 새롭게 추가되는 4인승 2도어 럭셔리 쿠페인 ‘더 뉴 E-클래스 쿠페’를 비롯해 총 5종의 월드 프리미어 모델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더 뉴 E-클래스 쿠페의 외관은 쿠페 모델 특유의 비율과 함께 뚜렷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며 여유로운 실내와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

한다. 또 더 뉴 E-클래스와 똑같이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이 결합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가 탑재됐다.

이 밖에 벤츠는 프리미엄 콤팩트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더 뉴 제너레이션 GLA’와 고성능 스포츠카 ‘메르세데스-AMG GT’의 부분변경 모델 등 부분변경 모델 3종도 공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부산 조선 관련기업 조달청 공공조달제 설명회

조달청은 오는 18~19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과 전남지역 조선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등을 소개하는 공공조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 관련기업에 조달제도를 소개해 공공관료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관련 기업들이 조달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인적자원개발위-노동청 인력양성 협약 지난 9일 광주시청 경제부시장실에서 남현일(맨 왼쪽) 광주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종식(가운데) 광주시 경제부시장,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